

# '2034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수도, 전주'

### 시, 민선8기 대한민국 영화·영상 산업 중심 도약 위해 비전 선포

전주시가 다양한 영화·영상산업 관련 인프라를 하나둘씩 확충하면서 세계적인 영화도시로 점차 성장하고 있다.

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대한민국 영화·영상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2034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수도, 전주' 비전을 선포하고, 그에 따른 인프라 조성을 가시화하면서 전주민의 독창적이고 지속가능한 영화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특히, 시는 세계적인 영화촬영소인 큐뮤필름스튜디오 제2 스튜디오 전주 건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전주국제영화제의 주 무대가 될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에 착수하는 등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시설을 하나둘씩 늘려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는 영화산업 관련 해외 기업 유치에 성공해 지난해 10월 (주)큐뮤필름스튜디오 한국법인 유치를 했다.

특히 시는 지난해 5월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전주에 큐뮤필름스튜디오 제2 스튜디오를 약 33만㎡(10만 평) 규모로 건립하기로 합의했으며, 그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전주 독립영화의 집 조감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시는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개정했으며, 스튜디오 건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로케이션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자금 조성 및 부지 조성 관련 행정절차를 세세하게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시는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개정했으며, 스튜디오 건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로케이션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자금 조성 및 부지 조성 관련 행정절차를 세세하게 진행하고 있다. 큐뮤스튜디오가 전주에 건립되면 아바타와 같은 헐리우드급 영화들이 촬영을 위해 전주를 찾게 되고, 해외 투자 유치 및 공동 제작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 관련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또한, 시는 완산구 고사동 영화의 거리에 전주 독립영화의 집을 건립하고 있다. 올해 1월 시작된 독립영화의 집 건립공사는 내년 말 준공 예정으로, 향후 독립영화 제작자와 시민들이 다양한 영화를 접할 수 있는 창작과 상영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이곳에서 국제적 위상이 높은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등 영화의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완산구 상림동 영화

촬영소 부지에는 'K-Film 스튜디오'를 건립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해당 부지에는 영화 촬영에 필요한 배경을 LED Wall에 구현해 촬영하는 '3D 버추얼 프록션 스튜디오'와 섭외가 불가능하지만 촬영에 꼭 필요한 경찰서와 병원, 주민센터를 '특성화세트장'으로 조성하고 있다.

시는 내년 11월 스튜디오 건립이 마무리되면 기존 영화촬영소와 함께 국내외 영화 제작팀을 유치하고, 전주가 대규모 상업 영화 제작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거점시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시는 내년도 'AI 기반 VFX 후반제작시설 구축사업' 예산으로 국비 10억 원을 확보해,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기술인 VFX(시각특수효과)를 후반제작에 적용할 수 있다. 이로써 촬영부터 후반제작까지 원스톱 지원을 하는 생태계가 완성돼 전주시의 영화·영상 산업 경쟁력이 대폭 향상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는 기존의 단순 영화 촬영도시를 넘어 기획과 제작, 투자, 후반제작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수도 전주를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성공적인 인프라 구축과 내실 있는 운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는 지난 19일 전주 평화의 전당에서 민관 협력 복지 네트워크인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2025년 활동 성과를 결산하고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성과공유 및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 '일상에서 누리는 신바람 복지'

###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 공유·역량강화 워크숍 열려

전주시는 지난 19일 전주 평화의 전당에서 민관 협력 복지 네트워크인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2025년 활동 성과를 결산하고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성과공유 및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일상에서 누리는 신바람 복지'를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동네복지 담당 공무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지난 1년 동안 거둔 결실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주만 전주시의회 부의장은 지역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 위원 20명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동 협의체

연합회가 '함께라면 성금 전달식(100만 원)'을 진행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와 관련, 이날 1부 성과공유의 장에서는 현장에서 땀 흘린 위원들의 활동 영상도 상영돼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으며, 이어 풍납동과 우이2동의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돼 각 동별 특색 있는 복지 사업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어진 2부 역량강화 특강에서는 작가지자 유희바인 우은민 작가가 강사로 나서 '삶이 흔들릴 때, 행복은 더 깊어진다'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불의의 사고를 극복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작가의 진솔한 고백은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활동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동 협의체 연합회가 '함께라면 성금 전달식(100만 원)'을 진행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와 관련, 이날 1부 성과공유의 장에서는 현장에서 땀 흘린 위원들의 활동 영상도 상영돼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으며, 이어 풍납동과 우이2동의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돼 각 동별 특색 있는 복지 사업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어진 2부 역량강화 특강에서는 작가지자 유희바인 우은민 작가가 강사로 나서 '삶이 흔들릴 때, 행복은 더 깊어진다'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불의의 사고를 극복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작가의 진솔한 고백은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활동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아동도서관, 책육아 도서대출 서비스 지속 운영

어린이 특화 도서관인 전주시 아동도서관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임신부와 영아 보호자를 위해 집에서 도서관 책을 택배로 받아볼 수 있는 '다독다독 책육아 도서대출 서비스'를 내년에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임신부와 12개월 이하 영아 보호자가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아동도서관 소장 도서 대출을 신청하면, 가정에서 편안하게 택배로 책을 받아보고 반납까지 할 수 있는 도서대출 서비스이다.

도서대출 서비스는 회원 가입자에 한해 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1회 최대 10권까지 대출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운송일을 포함해 30일이다.

지난 2021년 사업 첫해 대비 도서 대출권수는 약 287% 증가했으며, 아동도서관이 지난 6월 서비스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8.8% 이상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권희성 기자

## 시민 생활 편의 위한 특별교부세 38억원 확보

### 전주시, 생활SOC 개선·인프라 확충 등 현안사업 추진

전주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25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38억 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생활SOC 개선과 인프라 확충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완산 청소년시설 보수공사(5억 원) △안골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4억 원) △효자4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6억 원) △효자공원 시설개선사업(2억 원) △세병공원 야외무대 확장공사(6억 원) △아중천 관암보행교 가설공사(4억 원) 등이 배정됐다.

이를 통해 시는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과 주민 이용 편의 개선,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 현안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정부 재정 지원을 확대 유치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할 계획이다.

김윤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전주시민의 생애주기에 맞춘 사업들에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로, '완산 청소년센터 보수공사'와 '수소놀이 체험관 건립', '기린공원 등산로 정비', '안골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시민들의 삶에 가장 잘 와닿는 곳을 지원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시민의 목소리를 잘 들으며 현정에 반영하고, 우리 전주가 더 살기 좋은 도시, 더 발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한 걸음씩 계속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성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을)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사업 예산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반영돼 매우 뜻깊고, 특히 효자4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과 효자공원

시설 개선 사업은 전주시민의 삶을 한층 더 윤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주 지역의 숙원사업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며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은 "이번 하반기 특별교부세는 세병호 야외무대 확충 같은 문화공간 확충부터 아중천 관암보행교 및 어은로 보행환경 개선 등 생활환경 개선까지 일상에서 직접적으로 맞는 사업들로 채워졌다"면서 "전주의 품격을 높일 특별교부세 예산을 앞으로도 꾸준한 협력으로 계속해서 늘리고, 전주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 시민 중심의 도시 발전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대중교통 시책평가 6회 연속 우수기관 선정

전주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됐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한 '2025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6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대중교통 시책평가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중교통 시책 수립과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2년 주기로 전국 광역·기초 1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교통 분야 핵심 평가이다.

인구 기준 총 4개 그룹(A~D)으로 나눠 시행되는 평가에서 전주시는 B그룹(인구 30만 이상)에 포함돼 다른 28개 도시와 함께 지난 7월부터 내·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평가단의 심사를 받았다. 그 결과 시는 B그룹 3위를 차지해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마을버스 확대, 모신타시 운영 등 수요 맞춤형 대



중교통 공급 개선 △친환경 수소버스 확대 도입 △정기권 운영 등 시민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통해 시민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점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 평가는 기존과 달리 '도시철도 운영 여부' 항목이 제외되고, 오직 '인구 기준'으로만 그룹이 구분되면서 수도권과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들과의 직접 경쟁이 이뤄졌다. 하지만 시는 도시철도 등 교통인프라 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 3위라는 성과를 거두며 대중교통 정책 경쟁력을 입증했다. /권희성 기자

깨끗한우·안전한우

# 장수한우

JANGSU KOREAN BEEF

## 종축개량과 저탄소 사료개발로 친환경 축산업을 선도하는 장수한우지방공사는 장수한우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장수한우지방공사  
Jangsu Hanwoo - local corporation

종축기지화

TMR사료 개발

우량유전자 개발

브랜드육 유통형성화

저탄소 산업화 구축